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박 미 진 최 인 화 이 재 창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을 군집화하여 각 군집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고등학교의 진로상담에서 차별적 처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진로결정상황척도(My Vocational Situation), 특성-상태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사용하여 측정된 결과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진로결정 유형을 군집화하였고 각 유형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서울시내 고등학생 540명(남학생 216명, 여학생 324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 분산분석, 군집분석, χ^2 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7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즉 진로결정-확신 집단, 진로결정-불확신 집단, 진로결정-불안정 집단, 진로미결정-불안정 집단, 진로미결정-미불안 집단, 진로결정-혼란 집단, 진로미결정-역기능적 사고 집단 등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진로결정유형에서 인지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고 미결정 집단뿐 아니라 결정 집단에서도 하위유형이 있음이 나타났고, 각 군집은 성별 및 계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elatt(1962)는 일찍이 상담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학생들로 하여금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은 그 결과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과정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기술을 학습시키는 것은 진로상담의 중요한 과정이 되며 특히 청소년기의 고등학생에게는 중요한 발달과제가 된다(이재창, 1988).

최근에 이러한 진로결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진로결정에 있어서 개인차를 고려한 차별적 진단(differential diagnosis)과 차별적 처치(differential treatment)를 위해서는 개인의 진로결정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김봉환, 1997; Fuqua, Blum, & Hartman, 1988). 또한 지금까지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가 서로 혼란을 보이면서 진로미결정이라는 것을 이분법적 변인으로 보는 것은 부적합하고 미결정에도 이질적 하위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일반화되고 있다(Fuqua, Blum, & Hartman, 1988; Gordon, 1998).

진로결정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진로미결정의 다차원적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진로미결정의 다양한 차원과 유형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로미결정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유형에 따른 개인의 특성을 알아보는 데 유용한 변인을 선택한 연구가 있어야하고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진로계획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인지가 미치는 영향은 최근 진로발달분야에서 상담자와 연구자들의 주 관심사가 되어왔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진로의사결정과 직업선택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내담자의 인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Lewis & Gilhousen, 1981; Nevo, 1987). 이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역기능적 인지는 내담자의 혼란과 미결정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Sampson, Peterson, Lenz 및 Reardon(1996)은 이러한 인지를 진로상의 역기능적 인지(dysfunctional cognitive)로 개념화하고 진로사고 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를 개

발하였다.

국내의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문 현실이다. 또한 진로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인지에 대해서는 역시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인지과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의 진로상담에서 개인차를 고려한 차별적 진단과 차별적 처치를 위한 진로상담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유형 및 인지적 정보처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진로의사결정에 인지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을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화하고, 각 군집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1. 진로결정유형

지난 20년간 진로심리학분야에서는 진로미결정을 이해하고 그 구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경주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한 주류는 진로미결정의 구조적 차원을 확인하고 윤곽을 잡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Fuqua, Newman, & Seaworth, 1988; Shimizu, Vondracek, Schulenberg, & Hostetler, 1988; Vondracek, Hostetler, Schulenberg, & Shimizu, 1990). 즉 진로를 결정한 사람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데 관심을 두고 연구가 진행된 한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집단내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최근 경험적 연구의 주안점이 되었다(Vondracek, Hostetler, Schulenberg, & Shimizu, 1990).

또 다른 주류는 광범위한 심리적·사회적 변인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요인을 찾는 데 있다. 이러한 변인 중 널리 연구된 것 중의 하나가 불안으로 진로미결정과 일관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Fuqua, Newman, & Seaworth, 1988; Fuqua, Seaworth, & Newman, 1987; Hawkins, Bradley, & White, 1977). 그러나 Jones 와 Chenery(1980)의 연구에서는 특성불안과 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ewman, Fuqua 및 Minger(1990)는 진로결정집단과 미결정 집단간에 상태 및 특성불안이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어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연구에서 불안이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불안과 더불어 진로결정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연구된 것으로는 진로정체감이 있다. 진로정체감은 확립되어있을 경우, 의사결정에 문제를 느끼지 않으며 모호한 선택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진로정체감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man, Fuqua, & Blum, 1985; Newman, Fuqua, & Minger, 1990).

Saunders, Peterson, Sampson 및 Reardon(2000)에 의하면, 인지적 측면에서 진로정체감은 자기정보와 직업정보의 동화와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는 인지적 구조(cognitive structure or architecture) 혹은 도식(schema) 역할을 한다. 낮은 진로정체감은 이러한 통합을 이루는 인지적 구조를 제공하지 못한다. 불안과 같은 정서상태는 약한 진로정체감과 혼란스럽고 혼돈된 사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홍혜경(1998)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이 진로유형들간

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상관 요인으로는 내외통제성, 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수동성, 성공공포, 의사결정양식, 문제해결능력 등이 있다(김봉환, 김계현, 1995; 홍혜경, 1998; Newman, Gray, & Fuqua, 1999).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연구의 세 번째 주류는 다양한 미결정의 하위유형을 구별해내는 시도들이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은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undecided)' 사람과 좀 더 넓고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의 유형을 일컫는 '미결정적인(indecisive)'인 사람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Fuqua & Hartman, 1983; Holland & Holland, 1977; Salomone, 1982). 좀 더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군집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심리사회적 측정상의 점수유형을 토대로 미결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하위유형을 구별하고 있다(Fuqua, Blum, & Hartman, 1988; Larson, Heppner, Ham, & Dygan, 1988; Lucas & Epperson, 1990; Wanberg & Muchinsky, 1992).

Gordon(1998)은 진로 결정집단과 진로 미결정 집단의 하위유형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연구대상이나 측정도구 등에 따라 하위유형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Gordon은 15개의 진로 미결정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여 다시 그 유사성에 따라, 확실히 결정(very decided), 어느 정도 결정(somewhat decided), 불안정한 결정(unstable decided), 잠정적 미결정(tentatively undecided), 발달적 미결정(developmentally undecided), 매우 미결정(seriously undecided), 만성적 유유부단(chronically indecisive)의 7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결정-미결정의 연속선(decided-undecided continuum)상에서 결정 유형 3범주, 미

결정 유형 4범주로 연구의 유사성에 따라 정리된 것이다(박미진, 1999).

국내에서도 진로결정과 미결정의 하위유형을 유형화한 연구가 있는데, 김봉환(1997)은 기존의 연구가 행동차원을 간과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라는 이차원적 유형화를 시도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최영미(1998)도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을 확인하고 자아정체감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허자영(1996)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유형화 연구에서는 ‘진로결정-확신있는’, ‘진로결정-확신없는’, ‘진로결정-정보필요’, ‘진로미결정-정보필요’, ‘진로미결정-진로무관심’, ‘진로미결정-불안정성’의 유형을 확인하였다.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혜경(1998)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상태모형을 구성하는 결정성, 편안성, 이유의 세 차원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행한 결과 세 차원에 따른 특성에 따라 ‘안정결정형’, ‘다재다능형’, ‘잠정결정형’, ‘불안결정형’, ‘혼돈미결정형’, ‘수행불안형’의 6개 군집들이 존재한다는 결과

를 얻었다.

많은 연구결과 확인된 진로결정유형은 진로상담에서 진로결정수준의 개인차를 고려한 차별적 진단과 차별적 처치(Savickas, 1995)를 가능케 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차별적 개입은 앞으로의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이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인지적 정보처리이론

진로에서의 인지적 정보처리(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CIP) 이론은 Peterson, Sampson 및 Reardon(1991)에 의해서 발달되었으며, 그 내용은 개인이 어떻게 진로결정을 내리고 진로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시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는지의 측면에서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을 진로발달에 적용시킨 것이다.

인지적 정보처리 접근방식의 일차적 목적은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의 진로문제를 해결하고 진로의사결정을 하도록 조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결정을 한 후에도 의사결정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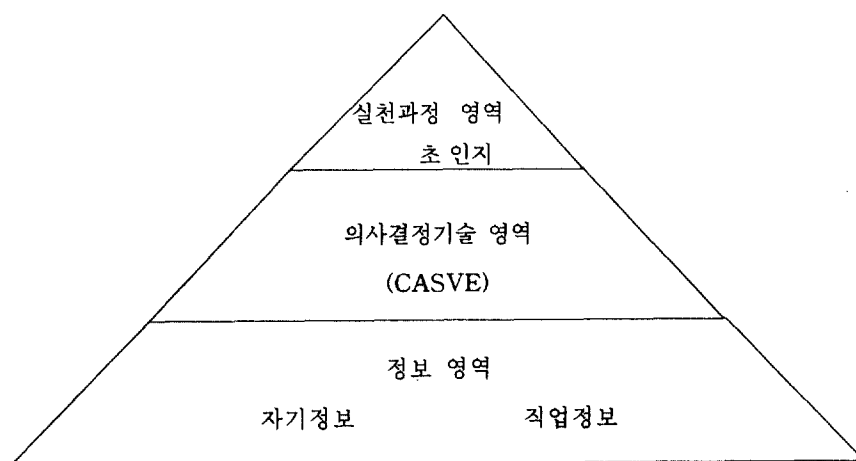


그림 1. 인지적 정보처리의 피라미드
(Peterson, Sampson, & Reardon, 1991)

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진로문제해결력과 진로 의사결정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능력은 특히 청소년이나 끊임없는 직업변화가 일반적인 현대사회의 성인에게 중요한 것이다. 또 다른 인지적 정보처리 접근방식의 목적은 이론 적용을 촉진함으로써 제공되는 진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인지적 정보처리에서 진로문제해결 및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처리영역은 피라미드 형태로 개념화될 수 있다(<그림 1> 참조). 피라미드의 가장 하단에는 자기정보와 직업정보로 구성된 정보영역이 있고, 이러한 두 정보영역 위에 의사결정기술 영역이 위치한다. 이 영역에는 개인이 진로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활동과 관련된 정보처리기술이 포함된다. 진로문제해결이 일차적으로 인지적 과정이라고 볼 때, 이 영역에서 '의사소통(Communication)-분석(Analysis)-통합(Synthesis)-평가(Valuing)-실행(Execution)'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인 CASVE cycle을 통해서 의사결정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다(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CASVE cycle에서 의사소통(C)은 질문을 받아들여 부호화하고 송출한다. 분석(A)은 한 개념적 틀 안에서 문제를 찾고 분류한다. 통합(S)은 일련의 행위를 형성시키며, 평가(V)는 성공과 실패의 확률에 관해 각각의 행위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실행(E)은 책략을 통해 계획을 실행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라미드의 가장 상위에는 실행과정 영역이 있으며 이 영역에는 초인지(metacognition)가 포함된다. 초인지는 진로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인지적 전략의 선택과 지속을 조절한다. 피라미드의 영역들은 상하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초인지는 모든 영역의 내용과 기능에 영향을 주고 의사결정기술은 정보

영역의 내용과 기능에 영향을 준다.

인지치료의 이론적 개념과 인지적 정보처리의 이론적 배경은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CTI) 개발에 기초가 되었다. 특히 역기능적 사고과정, 역기능적 도식, 자동적인 체계적 사고오류의 영향,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진로미결정의 일반적 영향요소인 불안과 우울 등에 관해 축적된 인지치료적 과정과 연구가 CTI 개발의 기초가 되었다(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 Saunders, 1996).

역기능적 사고는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정확한 문제파악을 어렵게 만든다. 역기능적 사고는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주고 이는 또 다시 역기능적 사고를 강화시킴으로써 순환과정을 만든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순환과정이 끊겨야하며 역기능적 인지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인지적 재구성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해 좀 더 창의적이고 현실을 토대로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게 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 고등학교 5개교(인문계 2개교, 실업계 3개교)에서 표집하였으며, 수거된 질문지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51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540명의 자료가 최종적인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계열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단위: 명(%)

구 분	학 년		계 열		전 체
	1학년	2학년	인문계	실업계	
남 자	115(21.3)	101(18.7)	107(19.8)	109(20.2)	216(40.0)
여 자	164(30.4)	160(29.6)	181(33.5)	143(26.5)	324(60.0)
총 계	279(51.7)	261(48.3)	288(53.3)	252(46.7)	540(100.0)

2. 연구도구

1) 진로사고 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CTI)

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및 Saunders (1996)에 의해 개발된 진로사고 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이하 CTI)는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 결정에 손상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진로와 관련된 역기능적 사고를 측정하도록 개발된 검사이다. CTI는 인지적 정보처리(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CIP)이론과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를 이론적 근거로 개발되었다. 초기 CTI 개발에서는 인지적 정보처리이론의 자기정보, 직업정보, 의사소통, 분석, 종합, 평가, 실행, 실행과정의 8 영역을 CIP 내용차원으로 하여 예비항목을 추출하였다. 예비항목은 개발자들의 진로상담경험에서 얻어진 실제 내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한 248문항이었으며 이는 다시 경험있는 진로상담자들에 의해 195항목으로 축소, 수정되었다. 195항목은 다시 몇 단계의 표준화과정을 통해 최종 48문항으로 확정되었다.

CTI의 모든 항목은 효과적인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전반적인 역기능적 사고를 나타내는 총점과 요인분석으로 얻어진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많고 자신에 대한 명

확성(self-clarity)이 부족하여 자신의 흥미나 능력, 직업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성격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CTI의 3가지 하위척도는 다음과 같다(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 Saunders, 1996).

① 의사결정 혼란(Decision Making Confusions: DMC, 14항목): 의사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정서적 문제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거나 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한 척도이다. 의사결정 혼란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 명확성이 부족하며 문제에 압도당해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기 어려우며 문제해결과정에서 불안과 우울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된다.

② 수행불안(Commitment Anxiety: CA, 10항목): 진로의사결정과정의 결과에 관한 일반화된 불안으로 인한 무능력을 반영한 척도로 이러한 불안은 진로미결정을 지속시키게 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수행 불안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대안중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하거나 대안에 대한 우선 순위를 매기는 등의 일련의 선택과정에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게 된다.

③ 외적 갈등(External Conflict: EC, 5항목):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게 하는 갈등에 관

한 것으로 중요타인에게서 얻는 정보의 중요성과 자신이 지각한 정보의 중요성간에 균형 조절에 있어서의 무능력을 반영한 척도이다.

총 48문항의 CTI는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3)'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Likert식 4점 척도형태로 전체 응답 중 무응답이 5개 이상이면 무효 처리한다. 본 연구에서도 무응답이 5개 이상인 사례는 제외되었다.

인지적 정보처리이론과 인지치료 그리고 실제 진로상담에서의 내담자 진술이라는 논리적-경험적 접근방식에 따라 개발된 CTI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측정에 있어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개발자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CTI의 Cronbach's α 는 성인, 대학생과 고등학생집단에서 CTI 전체가 .93-.97, 의사결정혼란은 .90-.94, 수행불안은 .79-.91, 외적 갈등은 .74-.81로 나타났으며, 4주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집단에서 CTI 전체가 .77, 의사결정혼란은 .77, 수행불안은 .70, 외적 갈등은 .63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외적 갈등의 신뢰도는 외적 갈등 척도의 적은 문항수(5문항)때문으로 추정된다.

CTI의 타당도는 CTI 항목의 이론적 배경이 된 인지적 정보처리이론의 CIP 내용차원과의 상관, CTI 하위척도간의 상관, 진로결정상황척도(My Vocational Situation), 진로결정척도, 진로결정프로파일(Career Decision Profile), NEO 인성검사(NEO Personality Inventory) 등과의 상관, 다양한 인구나사회학적 변인의 대상자에 대한 검사, 일반 학생과 진로상담을 원하는 학생에 대한 비교검사 등을 통해 적절한 타당도가 검증되었다(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 Saunders, 1996).

본 연구에서는 CTI 개발자와 출판사(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의 동의하에 연구자가 1차 번역하였고 박사학위 소지자 2명(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2명(이중 언어자 1명 포함)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명(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에게 실시한 후 재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번역하였다. 연구결과, CTI 총점의 Cronbach's α 는 .93, 의사결정혼란은 .87, 수행불안은 .81, 외적 갈등은 .63으로 나타나 적절한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CTI의 타당도 역시 CTI 하위척도와 CIP 내용차원간의 상관과 CDS, MVS간의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표 2>, <표 3> 참조).

2) 진로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

진로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 이하 CDS)는 교육적-직업적 미결정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에 따라 Osipow, Carney, Winer, Yanico 및 Koschier (1976)에 의해 개발되었다. 진로결정척도는 확실성 척도(Certainty Scale)와 미결정 척도(Indecision Scale)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전체는 19문항으로 되어 있다.

CDS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Likert식 4점 척도형태의 18 문항과 자유반응식 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반응식 1 문항은 이전 문항보다 더 명확하게 진로에 대해 표현할 기회를 주기 위한 항목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확신성 척도(Certainty Scale)는 문항 1에서 2까지의 2 문항으로 전공이나 진로와 관련된 결정에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반면 미결정 척도(Indecision Scale)는 문항 3에서 문항 18까지의 16 문항으로 경험적 연구에서 추출된 16 가지 미결정의 선행조건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미결정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향자(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고향자(1992)에 의하면 CD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 반분신뢰도는 .80,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또한 척도의 타당도는 의사결정유형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합리적 유형과는 $r=-.24$, 직관적 유형과는 $r=.10$, 의존적 유형과는 $r=.44$)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 확산성 척도의 Cronbach's α 는 .85, 미결정 척도는 .87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3) 진로결정상황척도(My Vocational Situation: MVS)

총 20문항의 진로결정상황척도(My Vocational Situation, 이하 MVS)는 Holland, Daiger 및 Power (1980)가 개발한 것으로 진로정체감, 진로정보, 방해요인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는 진로정체감척도의 경우 “아니다(False)”, 진로정보, 방해요인척도의 경우 “아니오(No)”에 응답한 수를 세어 측정한다.

MVS의 진로정체감(Vocational Identity) 척도는 진로결정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개인 내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보려는 최초의 시도로 보인다(김봉환, 1997, 최인화, 1998).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지닌 삶의 목적과 자신의 흥미, 성격, 재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상(picture)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정체감 점수가 높은 경우 진로정체감이 확립되어 있어 의사결정에 별 문제를 느끼지 않으며 선택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반면 진로정체감 점수가 낮을수록 정체감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자기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며 진로선택에도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허자영, 1996).

진로정보(Occupational Information) 척도는 진로 선택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며 방해

요인(Barriers) 척도를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외적인 방해요인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 상담자는 내담자가 확인한 문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로선택의 방해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와 진로선택의 방해요인은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Holland 등(1980)은 두 가지 하위척도가 진로상담시 응답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개입방법을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효과적이거나 필요한 정보와 문제점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로써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olland 등(1980)의 검사지를 허자영(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자영(1996)의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의 Cronbach's α 는 .83, 진로정보는 .58, 방해요인은 .4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진로정체감 척도의 Cronbach's α 는 .80, 진로정보 척도는 .69, 방해요인은 .58로 나타났다. Holland 등(1980)이 권장한 바와 같이 진로정보와 방해요인은 낮은 신뢰도를 보여 체크리스트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군집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4) 특성-상태불안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특성-상태불안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는 Spielberger, Gorsuch 및 Lushene(1968)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특성불안(trait anxiety: 불안경향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차)과 상태불안(state anxiety: 일시적인 불안상태)을 측정하는 것이다.

특성-상태불안검사는 각각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0문항이며 Likert식 4점 척도형태로 되어

있다. 검사의 총점은 20점에서 8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상태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희(1993)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특성불안의 Cronbach's α 는 .84, 상태불안의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우선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군집분석 이전에 CTI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CTI 하위척도와 CIP 내용차원간의 상관 및 CTI와 전체 하위척도 상호간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군집분석은 대상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는 분석방법이다. 군집분석은 집단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유사한 집단을 분류하는 회귀분석, 판별분석 등과 달리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단지 측정치의 차이가 이용되어 의미 없는 변수를 제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선정된 변수가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유사성 평가에 투입된다(채서일, 김범중, 이성근, 1993). 따라서 군집분석에서는 변수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군집분석에 앞서 전체 하위척도를 공통요인으로 구분하고자 요인분석하였고 군집분석에는 9개의 하위척도가 사용되었다.

군집분석 방법은 결과에 대한 높은 해석력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심리학 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Borgen과 Weiss(1971), Bogen과 Barnett(1987)가 추천한 방식인 Ward의 최소 변량기법(minimum variance technique)을 사용하였다. Ward의 최소 변량기법은 최소의 집단 내 변량과 최대의 집단 간 변량을 가지고 군집들을 위

계적으로 형성시킨다. 군집의 적정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Semipartial R^2 값을 오차항으로 해석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가능한 군집의 개수에 대한 오차항의 도표로 보아 오차항이 갑자기 증가하는 첫 지점을 적정 군집 수로 결정한다.

적정 군집수가 결정된 후, 군집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군집별 하위척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및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군집별로 성별, 계열별 분포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료에 대한 모든 통계 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C+ package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해석

1. 상관관계 분석

1) CTI 하위척도와 CIP 내용차원간의 상관관계 분석

CTI 하위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CTI의 하위척도와 하위척도 구성의 근거가 된 CIP 내용차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4개의 CTI 척도와 8개의 CIP 내용차원간의 상관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CTI의 내용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하위척도간의 상관관계 분석

11개의 하위척도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 MVS의 하위척도인 진로정보와 CTI 전체 및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미결정, 상태불안, 특성불안간의 상관을 제외하고 전체 하위척

표 2. CTI 하위척도와 CIP 내용차원간의 상관관계

인지적 정보처리(CIP)의 내용차원	CTI 전체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자기정보(Self-Knowledge, SK)	.82***	.72***	.73***	.59***
직업정보(Occupational Knowledge, OK)	.73***	.55***	.69***	.42***
의사소통(Communication, CO)	.82***	.87***	.63***	.54***
분석(Analysis, AN)	.87***	.94***	.74***	.51***
종합(Synthesis, SY)	.83***	.79***	.74***	.47***
평가(Valuing, VA)	.80***	.64***	.76***	.77***
실행(Execution, EX)	.79***	.64***	.68***	.60***
실행과정(Executive Processing, EP)	.85***	.71***	.75***	.59***

***p<.001

표 3. 하위척도간의 상관관계

변인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확신성	미결정	진로정체감	진로정보	방해요인	상태불안	특성불안
CTI 전체	.90***	.88***	.69***	-.35***	.83***	-.60***	-.02	-.40***	.45***	.34***
의사결정혼란	1.00	.70***	.55***	-.39***	.76***	-.60***	.03	-.39***	.40***	.34***
수행불안		1.00	.51***	-.36***	.74***	-.57***	-.07	-.34***	.41***	.28***
외적갈등			1.00	-.12**	.55***	-.34***	.02	-.29***	.32***	.22***
확신성				1.00	-.28***	.48***	.10*	.31***	-.22***	-.25***
미결정					1.00	-.55***	-.03	-.33***	.35***	.26***
진로정체감						1.00	.18***	.40***	-.37***	-.32***
진로정보							1.00	.16***	-.05	.02
방해요인								1.00	-.32***	-.27***
상태불안									1.00	-.32***
특성불안										1.00

* p<.05 ** p<.01 *** p<.001

도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로정보와 진로정체감, 방해요인, 확신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하위척도간의 상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TI 전체,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은 확신성, 진로정체감, 방해요인과는 부적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미결정, 상태불안, 특성불안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진로에 관한 역기능적 사고가 있을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수준, 진로정체감이 낮으며 미결정수준, 불안수준은 높다고 볼 수 있다.

CTI 전체 및 각 하위척도와 CDS의 확신성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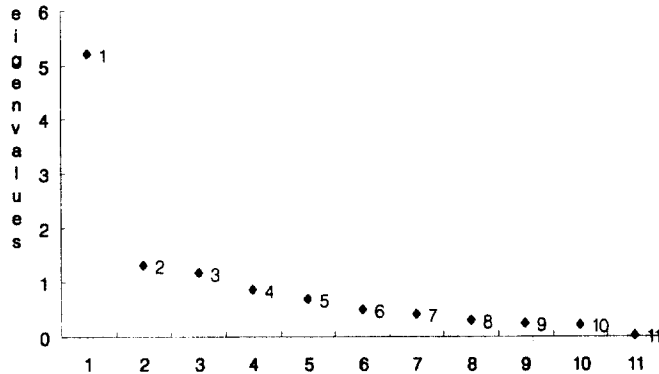


그림 2. 요인수에 따른 고유값(eigenvalues)의 변화

미결정, MVS의 진로정체감, 방해요인간의 상관
 은 CTI의 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외적 갈등의 경우 다른 CTI의 하위척도보
 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는데, Sampson
 등(1996)은 고등학생의 경우 외적갈등과 수렴
 타당도 입증 변수사이에 상관관계가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고등학생에게는 대학생
 이나 성인보다 갈등의 기회가 덜 있었던 결과
 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외적 갈등
 과 MVS, CDS 간의 상관이 CTI 전체 및 의사결
 정혼란, 수행불안과 MVS, CDS 간의 상관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3) 하위척도 요인분석

요인분석은 전체 하위척도를 어떤 공통요인
 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
 되었고 이를 통해 진로결정상의 차원과 그 내
 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요인분석은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이들 측정치 사이에 공유
 하는 구조를 파악해내는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
 는 요인추출방법 중 요인분석에서 주로 사용되
 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사
 용하였다(유대근, 권영식, 1999).

먼저 주성분분석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한 다
 음 베리막스(varimax)방식에 의한 회전시켜 고유
 값(eigenvalues)이 1.0이상인 것과 고유값의 하락
 을 고려하는 스크리(scree)검사를 근거로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림 2>는 요인수에 따른
 고유값의 변화를 설명한 스크리(scree) 그래프이
 다.

3개의 요인에 대한 하위척도의 적재치를 살
 펴보면 <표 4>와 같다. 요인 1은 CTI 전체 및
 하위척도, 미결정척도로 진로선택에 있어서 어
 려움, 미결정이유 등 전반적인 진로결정상의 문
 제를 측정하는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전
 체변량의 47.39%를 설명한다. 전체변량의 11.92%
 를 설명하는 요인 2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
 로 불안정도를 측정하는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CTI의 수행불안과는 다른 차원의 특성
 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요인 3은 진로정보,
 확신성, 진로정체감, 방해요인으로 진로선택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지, 진로확신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전체변량의 10.68%를 설명한
 다. 결과적으로 전체 하위척도는 진로결정상의
 문제, 불안, 진로확신의 3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표 4. 하위척도의 요인구조와 적재치

하위척도	factor 1	factor 2	factor 3
CTI 전체	.9376	.2130	-.1692
미결정	.8657	.1138	-.1540
의사결정혼란	.8553	.2186	-.1795
수행불안	.8277	.1616	-.2325
외적 갈등	.7436	.1301	.0667
상태불안	.1327	.9110	-.0844
특성불안	.2580	.8506	-.1157
진로정보	.1339	.1392	.7546
확신성	-.2446	-.2062	.6030
진로정체감	-.5402	-.2296	.5489
방해요인	-.2931	-.2928	.5100
고유값	5.2127	1.3112	1.1746
설명변량	47.39%	11.92%	10.68%

2. 군집분석

군집분석은 MVS 하위척도 중 진로정보와 방해요인을 제외한 9개의 하위척도로 분석되었다.

1) 군집수의 결정

군집수는 군집중심(centroid)간의 거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군집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Ward의 최소변량기법에 의해 결정되었고 군집의 적정수를 결정하기 위해 Semipartial R²값이 갑자기 증가하는 첫 지점의 군집 수를 적정 군집 수로 결정하였다.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듯이 군집이 7개일 때 Semipartial R²값이 감소하여 그 이후에는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군집은 7개로 결정되었다.

2) 군집별 하위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분산분석

다음의 <표 5>는 전체 하위척도의 평균, 표준편차이며 <표 6>은 각 군집별 하위척도의 평균, 표준편차이다.

연구 대상자들을 7개의 군집으로 나누었을 때 각 하위척도의 군집별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척도에 대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7>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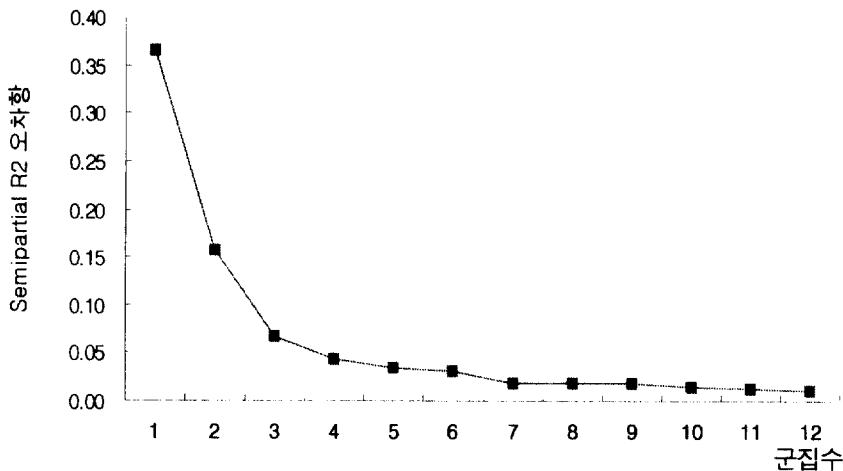


그림 3. 군집수에 따른 Semipartial R² 값의 변화

표 5. 전체 하위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척도	M(SD)	척도	M(SD)
CTI 전체	53.16(21.54)	미결정	34.57(9.17)
의사결정혼란	11.57(7.28)	특성불안	60.29(11.50)
수행불안	12.94(5.69)	상태불안	56.47(13.44)
외적 갈등	5.49(2.94)	군집분석에서 제외된 하위척도	
진로정체감	25.47(4.09)	진로정보	4.57(1.13)
확신수준	4.05(1.73)	방해요인	6.06(1.33)

표 6. 군집별 하위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1군집 (n=100)	2군집 (n=114)	3군집 (n=103)	4군집 (n=98)	5군집 (n=71)	6군집 (n=34)	7군집 (n=20)
CTI 전체	29.65(12.60) ^a	46.37(15.17) ^b	53.37(13.05) ^c	68.77(17.04) ^d	64.62(13.53) ^d	49.47(17.02) ^{bc}	97.55(18.85) ^f
의사결정혼란	4.20(3.78) ^a	9.40(5.19) ^b	11.77(5.03) ^c	16.40(6.20) ^d	14.80(5.21) ^d	10.41(6.12) ^{bc}	26.60(7.71) ^e
수행불안	7.36(3.93) ^a	11.54(4.59) ^b	12.93(3.96) ^b	16.61(4.72) ^c	15.96(4.19) ^c	11.59(5.16) ^b	22.35(5.20) ^d
외적 갈등	3.19(2.20) ^a	4.98(2.41) ^b	5.45(2.41) ^b	6.84(2.99) ^c	6.68(2.76) ^c	5.56(2.60) ^b	9.15(3.18) ^d
진로정체감	28.93(3.90) ^a	25.77(3.90) ^b	25.21(3.51) ^{bc}	23.72(3.21) ^d	23.86(3.41) ^{cd}	25.38(3.90) ^b	22.30(4.01) ^e
확신수준	4.94(1.90) ^a	4.18(1.61) ^b	3.75(1.48) ^{bc}	3.62(1.56) ^{bc}	3.59(1.51) ^{bc}	4.59(1.89) ^{ab}	3.25(2.10) ^c
미결정	23.13(4.26) ^a	32.06(6.31) ^b	34.12(5.18) ^b	42.86(5.68) ^c	39.83(4.71) ^d	32.18(7.00) ^b	53.10(4.59) ^e
특성불안	54.84(12.03) ^a	59.80(10.11) ^b	61.79(9.35) ^b	64.35(11.02) ^{bc}	60.85(11.45) ^{bc}	55.94(13.25) ^{ab}	68.05(12.68) ^c
상태불안	51.57(14.22) ^a	55.11(12.39) ^{ab}	59.28(11.94) ^b	59.55(12.25) ^b	56.65(11.79) ^{ab}	52.35(14.81) ^{ab}	65.50(19.63) ^c
군집분석에서 제외된 하위척도							
진로정보	4.71(1.51)	4.52(1.24)	4.54(1.03)	4.50(0.96)	4.62(0.83)	4.44(0.66)	4.70(1.26)
방해요인	6.75(1.65) ^a	6.13(1.21) ^b	5.70(1.09) ^b	5.72(1.06) ^b	6.10(1.33) ^b	6.24(1.28) ^b	5.20(1.15) ^c
%	18.5%	21.1%	19.1%	18.1%	13.1%	6.3%	3.7%

* 영문 위첨자는 Duncan 검증에 의한 집단간 평균치 차이여부를 나타냄. p<.05(위첨자 중 공통되는 문자가 없는 집단간에는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임)

표 7. 군집별 하위척도의 일원분산분석

하위척도	변량원	자유도	전체자승화	평균자승화	F
CTI 전체	집단간	6	133596.65	22266.11	101.82***
	집단내	533	116561.01	218.69	
	전 체	539	250157.66		
의사결정혼란	집단간	6	13560.73	2260.12	80.11***
	집단내	533	15037.60	28.21	
	전 체	539	28598.33		
수행불안	집단간	6	7137.09	1189.52	61.56***
	집단내	533	10298.77	19.32	
	전 체	539	17435.86		
외적 갈등	집단간	6	1104.25	184.04	27.70***
	집단내	533	3540.68	6.64	
	전 체	539	4644.93		
진로정체감	집단간	6	1898.37	316.40	23.74***
	집단내	533	7102.26	13.33	
	전 체	539	9000.64		
확신수준	집단간	6	145.91	24.32	8.81***
	집단내	533	1471.74	2.76	
	전 체	539	1617.65		
미결정	집단간	6	29583.40	4930.57	167.03***
	집단내	533	15733.20	29.52	
	전 체	539	45316.60		
특성불안	집단간	6	6710.65	1118.44	9.23***
	집단내	533	64609.43	121.22	
	전 체	539	71320.08		
상태불안	집단간	6	6567.18	1094.53	6.43***
	집단내	533	90785.29	170.33	
	전 체	539	97352.46		
군집분석에서 제외된 하위척도					
진로정보	집단간	6	3.90	.65	.50
	집단내	533	688.42	1.29	
	전 체	539	692.33		
방해요인	집단간	6	88.59	14.76	9.06***
	집단내	533	868.63	1.63	
	전 체	539	957.22		

*** p<.001

<표 7>에서 보듯이, 군집분석에 포함된 모든 하위척도에서 7개의 군집들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1$). 유의한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척도에 대한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군집분석에 제외된 하위척도 중 진로정보는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군집의 구성타당도 검증

진로미결정의 선행조건을 나타내는 진로결정척도(CDS)는 진로미결정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진로미결정의 유형을 파악하는 검사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Savickas와 Jarjoura(1991)의 연구에서와 같이, 진로결정유형 연구에서 군집의 타당성 검증과 특성파악을 위해 군집의 미결정 척도 16 문항의 평균점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점수분포를

살펴보면 1군집에서 7군집 모두 전반적으로 문항의 평균점수가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4) 군집분석결과에 의한 군집특성

각 하위척도의 군집별 평균, Duncan 사후검증 결과 및 CDS 문항별 평균점수를 참조로 각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군집: 1군집은 CTI 전체,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 갈등, 미결정, 특성불안, 상태불안 점수가 군집 중 가장 낮고 진로정체감, 확신수준은 군집 중 가장 높다. 1군집은 진로결정상의 문제가 거의 없으며 진로확신이 높고 불안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CDS 문항 중 15, 16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확신있게 결정한 집단임에도 필요로 하는 진로·직업정보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진로결정에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며 자신의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명확하며 발달적 측면에서 선택한 진로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실행을 하고 있는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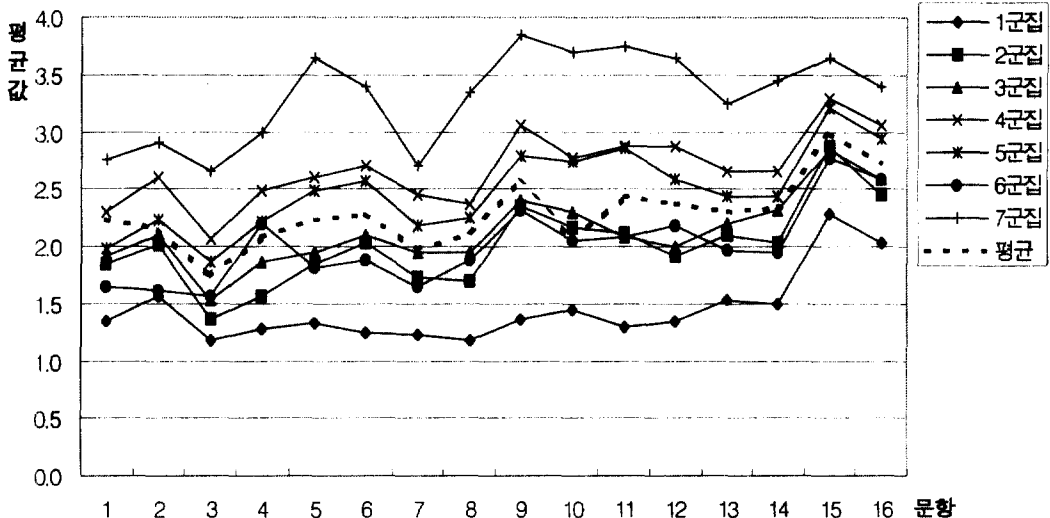


그림 4. 군집별 미결정척도 각 문항의 평균점수

단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1군 집은 '진로결정-확신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② 2군집: 2군집은 CTI 전체,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 갈등, 미결정, 특성불안, 상태불안의 점수는 1군집보다는 높으나 군집 중 낮은 편이며 진로정체감, 확신수준은 1군집보다는 낮으나 군집 중 높은 편이다. 1군집보다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가능성이 높고 진로확신수준도 낮으며 불안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CDS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2, 6, 9, 15, 16번으로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을 확실히 내리고 싶으나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고 모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2군집은 진로를 결정했고 결정에 대해 불안감은 크지 않으나 아직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확고하지 않아 자신의 결정에 의구심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에 2군집은 '진로결정-불확신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③ 3군집: 3군집은 CTI 전체, 의사결정혼란, 미결정 점수는 2군집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로정체감, 확신수준은 2군집보다 낮고 수행불안, 외적 갈등, 미결정, 특성불안, 상태불안은 2군집보다는 높으나 모두 동질집단으로 나타났다. 상태불안이 높은 편으로 현재 미결정으로 인한 다소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군집은 CTI 전체, 의사결정혼란에서 2군집과 이질집단인 것으로 사후검증 결과 나타났으며 2군집과 비교하여 CDS 문항 중 2, 7, , 14문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 문항들은 몇 개의 대안으로 결정을 했으나 어떻게 수행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서 2군집보다 높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며 성급한 결정에 대한 불안감과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혼란감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진로결정은 다소 불안정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 3군집은 '진로결정-불안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④ 4군집: 4군집은 CTI 전체,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 갈등, 미결정, 특성불안, 상태불안의 점수가 전체평균과 비교하여 높고 진로정체감, 확신수준은 군집 중 낮다. 확신수준, 특성불안, 상태불안의 경우 결정집단인 2군집, 3군집과 동질집단으로 나타나 이들의 미결정이 확신과 관련된 가능성은 낮다. CDS 문항 중 2, 6, 9, 15번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들의 문항은 진로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4군집은 Gordon (1998)의 진로결정유형분류에 따르면 미결정 유형에서도 결정을 준비한 '잠정적으로 미결정한' 유형이나 과도기적 미결정유형으로 성숙됨에 따라 미결정이 해결되는 유형인 '발달적으로 미결정한' 유형과 유사하다. 따라서 4군집은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집단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동기부족이나 전반적인 준비가 부족한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군집 4는 '진로미결정-불안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⑤ 5군집: 5군집은 CTI 전체,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미결정 점수는 전체평균보다 높으나 진로정체감, 확신수준, 특성불안, 상태불안은 평균에 가까운 중간수준이다. 미결정 집단 중에서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이 낮은 편으로 결정집단인 3군집과는 Duncan 사후검증결과 동질집단으로 확인되었으나 점수는 더 낮다. 5군집이 진로결정상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진로확신은 낮으나 불안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미결정에 대한 불안이 크지 않은 집단으로 자신이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 지금은 그리 염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군집은 '진로미결정-미불안 집단'으로 명

명하였다. 진로에 무관심하거나 결정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낄 가능성도 있다.

⑥ 6군집: 6군집은 2군집, 3군집과 모든 하위 척도에서 동질집단으로 나타났으나 CTI 전체,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 갈등은 중간으로 1군집, 2군집보다는 높고 진로정체감, 확신수준은 높으며 미결정, 특성불안, 상태불안은 낮다. '진로결정-확신 집단'인 1군집과 확신수준, 특성불안, 상태불안은 동질집단으로 나타났다. 군집3과 비교하여 CTI 전체 및 하위척도, 확신수준은 비슷하나 불안수준이 낮다. 확실히 결정한 집단보다 결정의 과정 혹은 질적 측면에서 비합리적이거나 성급한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CDS 문항 중 1, 2, 6번은 2군집, 3군집보다 낮고 4, 12번이 높은 것으로 보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 결정을 내리고자 하나 중요 타인이나 자신의 관심분야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6군집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진로결정-혼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진로결정-불안정 집단'인 3군집의 특성을 불안으로 본다면 '진로결정-혼란 집단'인 6군집은 불안보다는 인지적 혼란감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⑦ 7군집: 7군집은 CTI 전체,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 갈등, 특성불안, 상태불안의 점수가 가장 높고 진로정체감, 확신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미결정은 가장 높다. CDS 문항 중 특히 9, 5, 10, 11, 12, 15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진로선택이 부담스러워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으나 결정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체감이나 확신수준의 점수가 비록 군집 중 가장 낮으나 확신수준의 경우 결정집단인 3군집, 미결정집단인 4군집, 5군집과 동질집단으로 나와 이들의 미결정이 확신수준의 문제보다는 역기능적 사고에 의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겠다. 따라서 7군집은 '진로미결정-역기능적 사고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8. 군집의 성별 분포의 차이검증

	1군집	2군집	3군집	4군집	5군집	6군집	7군집	전체
남자	28(12.96)	47(21.76)	37(17.13)	45(20.83)	32(14.81)	13(6.02)	14(6.48)	216(100.00)
여자	72(22.22)	67(20.68)	66(20.37)	53(16.36)	39(12.04)	21(6.48)	6(1.85)	324(100.00)
	100(18.52)	114(21.11)	103(19.07)	98(18.15)	71(13.15)	34(6.30)	20(3.70)	540(100.00)

df=6
 $\chi^2=16.52^*$

* p<.05

표 9. 군집의 계열별 분포의 차이검증

	1군집	2군집	3군집	4군집	5군집	6군집	7군집	전체
인문	61(21.18)	71(24.65)	52(18.06)	43(14.93)	38(13.19)	12(4.17)	11(3.82)	288(100.00)
실업	39(15.48)	43(17.06)	51(20.24)	55(21.83)	33(13.10)	22(8.73)	9(3.57)	252(100.00)
	100(18.52)	114(21.11)	103(19.07)	98(18.15)	71(13.15)	34(6.30)	20(3.70)	540(100.00)

df=6
 $\chi^2=14.35^*$

* p<.05

5) 군집의 성 및 계열별 분포의 차이검증
 각 군집이 성별,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가 <표 8>과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군집별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는 2군집(진로결정-불확신), 4군집(진로미결정-불안정), 3군집(진로결정-불안정), 5군집(진로미결정-미불안) 순으로 많았고, 여학생은 1군집(진로결정-확신), 2군집(진로결정-불확신), 3군집(진로결정-불안정), 4군집(진로미결정-불안정)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군집의 성별 분포의 차이는 유의하게($p < .05$) 나타났다.

군집의 계열별 분포에서는 인문계는 2군집(진로결정-불확신)이 가장 많았으며 실업계는 4군집(진로미결정-불안정)이 가장 많았고 3군집(진로결정-불안정), 2군집(진로결정-불확신)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군집의 계열별 분포는 유의한($p < .05$) 차이를 보였다.

논의 및 제언

청소년기에 올바른 진로지도를 통하여 분명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촉진시키는 일은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물론 부적응적 행동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유형을 확인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알아보고, 진로상담에서 유형에 따른 차별적 진단과 처치를 통해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의해 진로의사결정에 인지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진로사고검사(CTI), 진로결정척도(CDS), 진로결정상황척도(MVS), 특성-상태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에

는 9개의 하위척도가 포함되었고 척도들의 요인분석에서 3가지 요인(CTI 전체 및 하위척도, 미결정-진로결정상의 문제,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불안, 확신성, 진로정체감-진로확신)이 확인되었다. 또한 하위척도들간에서 전반적인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결과, 고등학생의 진로유형을 나타내는 군집은 7군집으로, 결정 4군집과 미결정 3군집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은 그 특징에 따라 진로결정-확신 집단, 진로결정-불확신 집단, 진로결정-불안정 집단, 진로미결정-불안정 집단, 진로미결정-미불안 집단, 진로결정-혼란 집단, 진로미결정-역기능적 사고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에서는 진로미결정 집단에서만 하위유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결정한 집단에서도 하위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실시되었던 진로상담은 미결정집단뿐 아니라 결정집단에게도 각 유형을 고려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진로결정-확신집단의 경우, 진로상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진로확신감을 유지하기 위해 결정한 진로·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진로결정-불확신집단은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한 확신감을 얻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할 것이며 적성·흥미검사 등을 통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진로결정-불안정집단은 자신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합리적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진로결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합리적 사고들을 찾아 합리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진로미결정-불안정집단은 진로결정-불안정집단을 위한 상담개입과 더불어 이들의 미결정 원인을 구체

적으로 탐색해야하며 특히 비합리적 사고의 내용과 영향을 증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진로미결정-미불안 집단인 경우, 진로선택에 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직업현장체험과 같은 다양한 경험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진로결정-혼란 집단은 전반적인 자기탐색을 통해 진로결정 전과정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혼란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진로미결정-역기능적 사고 집단은 미결정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들의 생활전반에 있을 수 있는 역기능적 사고를 찾아 이를 합리적 사고로 변화시키고 미결정에 의한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군집분석결과, 진로결정유형의 구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진로확신보다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좀 더 의미있는 양태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진로결정에서 인지의 영향이 큼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결정유형뿐 아니라 결정유형에서도 진로결정에 관한 불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결정유형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인 불안감소의 프로그램을, 결정유형 학생들에게도 효과적으로 불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들의 역기능적 사고를 처치하기 위해서는 역기능적 사고의 도식과 이에 따른 영향을 인식시키고 합리적 사고로 변화시키는 인지치료적 접근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성별 및 계열에 따른 차별적 진로상담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 1, 2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 지역 및 학년에 따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사고검사(CTI), 진로결정척도(CDS), 진로결정상황척도(MVS), 특성-상태불안 척도만을 사용하였지만 보다 상세한 유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대인의존 등 관련 변인들을 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진로결정유형 구분과 명명은 다소 임의적 부분이 있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타당성 검증과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계현(1995).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 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상담과 심리치료, 7(1), 20-43.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박미진(1999).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내외통제성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대근, 권영식(1999). 통계분석을 위한 SPSSWIN 8.0. 서울: 기한재.
- 이상희(1993). 내-외향성 및 통제소재와 불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1988). 생활지도: 성장과 적응을 위한 접근. 서울: 문음사.
- 채서일, 김범중, 이성근(1993).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학현사.

- 최영미(1998).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네 가지 유형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실업계고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화(1998). 고등학생의 내외통제성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자영(1996). 대학생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혜경(1998).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orgen, F.H., & Barnett, D.C. (1987). Applying cluster analysi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456-468.
- Fuqua, D.R, Blum, C.R., & Hartman, B.W. (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365-373.
- Fuqua, D.R., & Hartman, B.W. (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 27-29.
- Fuqua, D.R., Newman, J.L., & Seaworth, T.B. (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154-158.
- Fuqua, D.R., Seaworth, T.B., & Newman, J.L. (1987). The relationship of career indecision and anxiety: A multivariate examin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175-186.
- Gelatt, H.B. (1962). Decision mak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9*, 240-245.
- Gordon, V.N. (1998). Career decidedness types: A literature review.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4), 386-403.
- Hartman, B.W., Fuqua, D.R., & Blum, C.R. (1985). A path-analysis model of career indecision.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3*, 231-240.
- Hawkins, J.G., Bradley, R.W., & White, G.W. (1977). Anxiety and the process of deciding about a major and voc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398-403.
- Holland, J.I., Daiger, D.C., & Power,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Holland, J.L., Gottfredson, D.C., & Power, P.G. (1980). Some diagnostic scale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1191-1200.
- Holland, J.L., & Holland, J.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Jones, L.K., & Chenery, M.F. (1980). Multiple subtypes among vocationally undecided college students: A model and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469-477.
- Kimes, H.G., & Troth, W.A. (1974). Relationship of trait anxiety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277-280.
- Larson, L.M., Heppner, P.P., Ham, T., & Dugan, K. (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39-446.
- Lewis, R.A., & Gilhousen, M.R. (1981). Myths of career development: A cognitive approach to vocational counsel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296-299.

- Lucas, M.S., & Epperson, D.E. (1990). Types of vocational undecidedness: A replication and refine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382-388.
- Nevo, O. (1987). Irrational expectations in career counseling and their confronting argum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5*, 239-250.
- Newman, J.L., Fuqua D.R., & Minger, C. (1990). Further evidence for the use of career subtypes in defining career statu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178-188.
- Newman, J.L., Gray, E.A., & Fuqua D.R. (1999). The relation of career indecision to personality dimensions of California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174-187.
- Osipow, S.H., Carney, C.G., Win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ed.). Columbus, OH: Marstthon Consulting and Press.
- Peterson, G.W., Sampson, J.P. Jr., & Reardon, R.C. (1991). *Career development and services: A cognitive approach*.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alomone, P.R. (1982). Difficult cases in career counseling: II-The indecisive client.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496-500.
- Sampson, J.P. Jr., Peterson, G.W., Lenz, J.G., & Reardon, R.C. (1992). A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services: Translating concepts into practic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 67-72.
- Sampson, J.P. Jr., Peterson, G.W., Lenz, J.G., Reardon, R.C., & Saunders, D.E. (1996). *Career Though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aunders, D.E., Peterson, G.W., Sampson, J.P. Jr., & Reardon, R.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288-298.
- Savickas, M.L. (1995). Constructivist counseling for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 363-367.
- Savickas, M.L., Jarjoura, D. (1991). The Career Decision Scale as a type indicat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85-90.
- Shimizu, K., Vondracek, F.W., Schulenberg, J.E., & Hostetler, M. (1988). The factor structure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Similarities across selected stud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213-225.
- Vondracek, F.W., Hostetler, M., Schulenberg, J.E., & Shimizu, K. (1990).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98-106.
- Wanberg, C.R. & Muchinsky, P.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71-80.

A Study of Clustering Career Indecision Types for High School Students

Mee-Jin Park In-Hwa Choi Jae-Chang Lee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ubtypes of high school students' career indecision through the grouping methods. For the effective career counseling in high school, differential diagnosis and differential treatments according to career decision subtypes is necessary. The cognition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career decisions and occupational choices. Therefore,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needs to be included as a variable of cluster analysis. In this study, the Career Thought Inventory was used to measure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40 students(115 males and 164 females) from five high schools in Seoul area. A set of tests(Career Thought Inventory, Career Decision Scale, My Vocational Situation,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were administered to the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cluster analysis, one-way ANOVA and Chi-square test.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7 clusters were identified. These 7 subtypes were named as 'decided-confident type', 'decided-doubtful type', 'decided-unstable type', 'undecided-unstable type', 'undecided-comfortable type', 'undecided-confused type', and 'undecided-dysfunctional thought type'.

Implications for career counseling and future research on the typology of career decision are discussed.